

2018년 9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Economist 홍준욱 02) 3787-4964/ chunukhong@kiwoom.com

미 증시, 은행주 중심 약세

파월 “연준의 예상에는 인플레가 보이지 않는다”

미 국채(10년), -4.84 b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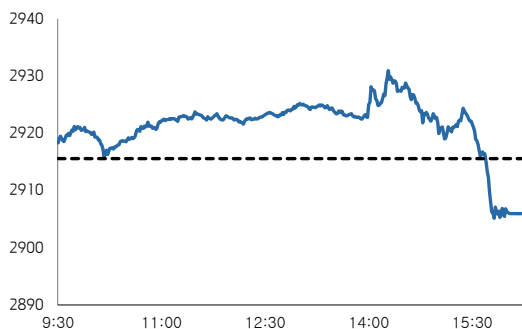
유럽 증시는 동반 상승(영국 +0.05%, 독일 +0.09%, 프랑스 +0.61%)했지만,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약세로 전환.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106.93 포인트(-0.40%) 떨어진 26,385.28p, S&P 500 은 0.33% 하락한 2,905.97p, 나스닥지수는 0.21% 하락한 7,990.37p 로 마감.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25bp 인상. FOMC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의 급격한 부각 가능성이 낮다며 “연준의 예상에는 인플레가 보이지 않는다(It’s not in our forecasts)”고 발언. 이 코멘트는 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발했으며, 이는 다시 은행주의 약세로 연결되었음.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84bp 하락한 3.048%로 떨어졌으며, J.P. 모건 체이스,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대부분의 은행주는 1% 이상 하락하며 약세.

한편 연준은 2018년 경제 전망을 기존 2.8%에서 3.1%로, 그리고 2019년 성장률도 기존 2.4%에서 2.5%로 상향 조정. 한편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으며,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현재의 금리 수준이 더 이상 ‘완화적’이지 않다는 연준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즉 앞으로 금리인상의 속도가 둔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금리가 균형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물론 파월 의장은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담합해, 나머지 국가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ripping off”)고 주장. 원유가격은 에너지 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 주 원유 채고의 증가(+185만 배럴)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하락 마감(WTI 기준, -0.98%).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39.17	+0.68	홍콩항셱	27,816.87	+1.15
KOSDAQ*	827.84	+0.82	영국	7,511.49	+0.05
DOW	26,385.28	-0.40	독일	12,385.89	+0.09
NASDAQ	7,990.37	-0.21	프랑스	5,512.73	+0.61
S&P 500	2,905.97	-0.33	스페인	9,524.80	+0.33
상하이종합	2,806.81	+0.92	그리스	701.89	+0.29
일본	24,033.79	+0.39	이탈리아	21,646.34	-0.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는 21일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 약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금융주가 1.27%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주도 약세(-0.99%)를 보였음. 반면 연준의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에 힘입어 경기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업종은 강세를 보였음. 통신서비스 업종은 컴캐스트와 월트 디즈니의 M&A 경쟁 속에 강세를 보였음.

참고로 컴캐스트는 영국의 방송사 스카이의 지분을 36.95%까지 취득했으며, 반대로 M&A 경쟁에서 패배한 월트 디즈니와 21세기 폭스는 스카이의 지분을 컴캐스트에게 양도하기로 결정(참고로 월트 디즈니는 21세 폭스를 7월 초 인수했으나, 21세기 폭스가 가지고 있던 영국의 위성방송 스카이의 지분 39%를 둘러싼 경쟁에서는 컴캐스트가 306억 파운드를 배팅해 승리를 거두었음). 컴캐스트는 최근의 급등세를 접고 전일보다 0.08% 하락한 35.37달러로 마감했으며, 월트 디즈니는 1.39% 상승한 115.21달러를 기록.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74%	대형 가치주 ETF	-1.08%
에너지섹터 ETF	-1.79%	중형 가치주 ETF	-1.39%
소매업체 ETF	+0.86%	소형 가치주 ETF	-1.38%
금융섹터 ETF	-1.20%	배당주 ETF	-1.37%
기술섹터 ETF	-0.37%	변동성 ETF	+1.11%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6%	대형 성장주 ETF	-0.12%
인터넷업체 ETF	-0.08%	중형 성장주 ETF	-0.65%
리츠업체 ETF	-1.11%	소형 성장주 ETF	-1.01%
주택건설업체 ETF	-0.89%	신흥국 고배당 ETF	-0.09%
바이오섹터 ETF	+0.3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7%
헬스케어 ETF	+0.22%	하이일드 ETF	+0.03%
곡물 ETF	-0.12%	물가연동채 ETF	+0.17%
반도체 ETF	-0.89%	Long/short ETF	+0.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2.11	-0.99	+1.71	+2.21
소재	369.20	-1.03	-2.08	-1.43
산업재	658.56	-0.15	-1.37	+1.31
경기소비재	934.36	+0.19	+0.59	+1.44
필수소비재	554.78	+0.06	-0.77	+0.40
헬스케어	1,092.83	+0.20	+1.20	+2.56
금융	464.66	-1.27	-2.27	-1.88
IT	1,309.37	-0.41	+0.69	-0.51
통신	159.90	+0.36	+2.10	+2.22
유틸리티	260.81	-1.04	-2.62	-3.04
부동산	198.99	-1.15	-2.52	-4.7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한국 주식시장, 강보합 흐름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0.10%, MSCI 신흥 지수도 0.21% 상승. 야간선물은 0.35pt 상승한 301.35pt 로 마감.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4.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미 연준이 '안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연휴 기간 중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며 WTI 기준 70 달러 선을 상회하는 강세를 보인 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특히 연휴 기간 중 미국 정보통신주가 전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강세를 보인 것도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신규주택판매, 전월 대비 3.5% 증가

미국 8 월 신규주택판매는 62.9 만 채를 기록. 전월대비 +3.5% 증가했고(예상치 +0.5%), 3 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음. 다만, 7 월 판매 수치는 62.7 만 채에서 60.8 만 채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올해 들어 신규주택 판매는 전년대비 6.9% 증가.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재고 증가 영향에 하락

달러화는 전일보다 소폭 상승. 미국 FOMC 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 따른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는 소폭에 그침. 9 월 FOMC 에서 미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00~2.25%로 25bp 인상함. 연준은 성장과 물가 전망치에도 변화를 주었음. 경기 낙관론을 강화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1%(6 월 2.8%)와 2.5%(6 월 2.4%)로 상향 조정했음. 하지만, 물가 전망치의 경우 내년도 PCE 물가지수를 2.0%로 지난 6 월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해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질 것임을 전망함. 점도표는 장기 목표 금리 수준이 3.00%으로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음.

국제유가는 연휴 기간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날은 원유 재고 증가 영향에 1% 하락 마감. 한국 연휴 기간 OPEC 에서는 공동점검위원회(JMMC)를 열어 원유 시장 환경을 점검.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압박으로 OPEC 이 증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으나, OPEC 은 산유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WTI 는 배럴당 72 달러 선을, 브렌트유는 배럴당 81 달러 선을 상회하기도 했음.

한편, 금일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1% 가까이 하락 마감. 이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85 만 배럴 증가했기 때문. 휘발유 재고도 153 만 배럴 증가함. 또한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FOMC 이후 달러 강세가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시킨 것으로 판단.

국제 금 가격은 전일 대비 0.50% 하락 마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점이 금 가격 상승을 이끌. 금 가격은 온스당 1,200 달러 선을 하회함.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1.57	-0.98	+1.13	Dollar Index	94.293	+0.17	-0.26
브렌트유	81.34	-0.65	+2.44	EUR/USD	1.1744	-0.20	+0.61
금	1,199.10	-0.50	-0.76	USD/JPY	112.74	-0.20	+0.41
은	14.401	-0.63	+0.85	GBP/USD	1.3170	-0.11	+0.20
알루미늄	2,065.00	-0.29	+1.92	USD/CHF	0.9655	+0.05	-0.18
전기동	6,282.00	-0.57	+2.63	AUD/USD	0.7261	+0.15	-0.03
아연	2,540.00	+1.32	+4.35	USD/CAD	1.3018	+0.49	+0.70
옥수수	363.00	-0.21	+4.99	USD/BRL	4.0253	-1.21	-2.47
밀	517.50	-0.62	-0.96	USD/CNH	6.8744	+0.08	+0.34
대두	850.00	+0.50	+2.41	USD/KRW	1115.30	-0.46	-0.12
커피	97.75	+0.67	+1.09	USD/KRW NDF 1M	1114.75	-0.26	-0.3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48	-4.84	-1.46	스페인	1.521	-0.20	-0.30
한국	2.410	-2.00	+10.00	포르투갈	1.889	+0.10	+0.40
일본	0.126	-0.70	+0.20	그리스	4.025	-2.10	-5.40
독일	0.526	-1.70	+3.90	이탈리아	2.856	-1.90	+0.70